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8. 5. 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수출 ‘新샌드위치’ 신세...거의 전 업종 수출 악화

(‘18. 5. 2, 조선일보, 매일경제 등)

1. 기사내용

- ☐ (조선) 4월 수출 부진 품목은 반도체를 뺀 한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 다 포함되어 거의 전 업종 수출 악화
- ☐ (매경) 주력 수출 품목이 부진 ... 다만,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은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소수 품목만 수출이 증가하였고, 거의 전 업종 수출이 악화되었다는 상기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
- ☐ 4월 수출은 주요 13대 품목 중 7개 품목*의 수출이 증가하여, 반도체·석유화학 외에 다수 품목이 수출 호조 및 회복세 시현

* 증가 품목(7개) : 반도체, 컴퓨터, 석유화학, 석유제품, 일반기계, 차부품, 섬유

- (증가) ①반도체 역대 2위, ②일반기계 사상 최대, ③석유화학 5개월 연속 40억불 돌파(19개월 연속 증가), ④석유제품 6개월 연속 30억불 돌파(18개월 연속 증가), ⑤컴퓨터 13개월 연속 증가 등 상기 5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
- ⑥섬유는 2개월 연속 증가, ⑦차부품은 1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
- (감소) 4월에 수출이 감소한 6개 품목(선박·철강·자동차·디스플레이·무선통신기기·가전)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.7%(‘17년)로, 이를 전 업종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※ 문의 : 수출입과 이원희 과 장 (044-203-4040)
정민규 사무관 (044-203-4041)